

금호산업, 상장폐지 피한다!

2조2000억원 출자 3월까지 완료 ... 워크아웃은 2014년까지

채권단과 투자자 간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대해 3월 중으로 2조2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완료해 상장폐지를 피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말까지 워크아웃을 추진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3월26일 리먼브러더스 등 모든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 출자전환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금융기업들을 상대로 출자전환 등의 금호산업 워크아웃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29일 이사회를 거쳐 출자전환 안건을 통과시키는 대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함으로써 금호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3월31일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해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막고, 워크아웃을 2014년 말까지 추진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중으로 금호산업에 대해 2조2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감자도 추진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으로 넘긴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950억원을 지원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회의를 거쳐 금호산업에 대한 감자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호산업이 2014년 말 이후 워크아웃에서 졸업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6>